



[2020 체인지] 상명하복 NO! 자율근무·토론 YES! "기업이 달라졌어요" 03



Economy

코스피	2197.67 (0.00)	코스닥	669.83 (0.00)
금리 (미국 3년)	1.36 (0.00)	환율 (원/달러)	1156.40 (0.00) (12.31)



경자년 희망을 기다리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다. 12간지 중 첫번째인 쥐띠는 근검 절약을 바탕으로 부지런하고 재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리 경제도 쥐띠처럼 부지런하게 희망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쥐띠 해의 첫날인 1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4차혁명 새 판 짜자 협업·공유 생존모색

비상(飛上) 2020

경계를 허물다

현대차 스마트모빌리티솔루션 집중
삼성 등 전자업계는 전장사업 매진



(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래) 구광모 LG대표가 올 초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석·박사 인력을 유치에 힘을 보탤다. /각사

올해 재계 화두는 도전이다. 사업 영역이 빠르게 무너지는 4차산업혁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하게 됐다 때문이다. 각자 장기를 특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꼽힌다. 공유 경제와 자율주행차, 차세대 파워트레인 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업계는 분야를 넘어 여러 시도들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는 재계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선점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회사로 꼽힌다. 전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생산업체로, 미래에도 시장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분주하다. 당장 수소전기차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사인 독일 아우디와 손잡고 수소차 스택을 공급하는 등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는 자율주행 플랫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일찌감치 자율주행차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 주행을 성공하는 등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애플과 협력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수년간 개발 기간을 아낄 수 있게됐다는 평가

가 나온다.

IT 부문 진출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61조1000억원을 투자해 사업구조를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 스마트모빌리티솔루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용 비행체(PAV)와 로보틱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할뿐 아니라, 플랫폼 기반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해 모빌리티 시장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쇼핑과 결제 등 유통과 금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첫 걸음도 내딛었다. 최근 설립한 모빌리티사업법인 모션이 설립한국센터 카사업조합연합과 협력을 약속하고 전국 센터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공급키로 한 것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변화의 싹... 확실한 성과로 꽃 피울 것”

文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앞둔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다"며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에게 보답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 하다" 며 "2020년, 국민들

문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며 소중하게 이뤄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일 '2019년을 빛낸 의원 7명'과 함께 한 아차산을 등반하며 경자년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512조 '역대급'... 중복 복지지출 막아야

올해 정부 예산 분석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특히 대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세금수입은 줄고, 과도한 복지로 쓸 돈은 많아지면서 재계와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을 편 정부가 경제 활성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해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정부가 운용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다.

◆중복되는 복지예산... "현금성 지원 조절해야"

올해 정부 예산은 512조25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 6000억원)보다9.1%(42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80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기존 정부가 편성했던 181조6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가량 손감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였지만, 전체 중 약 25%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방대하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를 기록했다.

문제는 중복되는 복지예산이 많지만,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중 집행부진·중복 등을 지적하며 각 분야에 편성한 세부 예산을 잇따라 보류하기도 했다. 예결위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현금지원 예산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 규모가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2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

함께라서 좋은 새해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서로의 희망을 나누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2020년이 되길 기원합니다